

## 같은 비전 두고 道-JDC '엇박자'

<제주국제자유도시>

도, 새 발전 방안 모색 위해 3차 종합계획 2021년 확정  
JDC 미래전략 수립 별도 추진... 시행계획 미반영 우려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수립 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가 제각각 추진돼 '엇박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 수립방향 설정 과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11~2021)의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3차 계획의 기본설계 범위를 마련하는 것이다. 종합계획은 제주 최상위 계획으로써,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에 근거해 10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상반기 계획안을 마련한 후 도의회 등의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추진된다. 그러나 JDC가 제주도의 종합계획과는 별도로 '제주형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용역은 '제주형 국제도시'를 재정립하고 JDC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제주국제도시 조성 방향성과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지난달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8월까지 1년간 진행한다.

문제는 JDC 시행계획은 국토부와 제주도와 협의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돼야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용역 완료 시점만

보면, JDC 용역은 내년 완료되는데 반해 제주도 종합계획은 2021년으로 약 1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현재로서는 반영 여부가 불투명해 JDC가 용역을 통해 미래전략 계획을 수립하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4억9000만원 규모의 JDC 용역이 '휴지 조각 신세'로 전락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서 나간다는 느낌은 있다"면서도 "JDC 용역결과 도출되는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DC 관계자는 "과업지시서 작성을 하면서 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등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며 "종합계획을 마무리한 후에 시행계획을 만드는 것이 되며 엇박자가 될 수 있다. 먼저 진행하는게 순서상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폭우에 뿌리 드러낸 씨감자 제주 동부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린 2일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한 감자밭에서 흩어 폭우에 쓸리면서 씨감자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며 농심을 애태우고 있다. 강희만기자

## 가을장마 이어 태풍까지... 큰 피해 우려

13호 '링링' 6일 제주 영랑 강풍 동반한 강한 비 예고  
루사 등 초가를 태풍 피해 커  
안전·피해 예방에 각별 주의

가을장마로 인해 제주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태풍도 북상하고 있어 안전과 피해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필리핀 동쪽 569km 해상에서 제13호 태풍 '링링'이 발생했다.

'링링'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중심 기압 1000hPa, 최대풍속 초속 18m의 소형 태풍으로 강풍반경 210km의 세력을 유지하며 시속 33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링링'은 타이완 동쪽 해상을 경유해 6일 오후 3시 서귀포 남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6일 밤 사이 제주도 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 7일 오후 3시쯤 군산 서쪽 약 8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링링'은 현재 소형급이지만 5일부터 강도가 중형으로, 제주에 가까워지는 6일부터는 크기도 중형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지역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6일부터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까지 추가로 유입되며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6일 밤과 7일 사이 제주도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 초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한반도로 북상할 경우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태풍의 진로는 기업계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100%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발표되는 기상예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13호 '링링' 6일 제주 영랑 강풍 동반한 강한 비 예고  
루사 등 초가를 태풍 피해 커  
안전·피해 예방에 각별 주의

가을장마로 인해 제주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태풍도 북상하고 있어 안전과 피해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필리핀 동쪽 569km 해상에서 제13호 태풍 '링링'이 발생했다.

'링링'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중심 기압 1000hPa, 최대풍속 초속 18m의 소형 태풍으로 강풍반경 210km의 세력을 유지하며 시속 33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링링'은 타이완 동쪽 해상을 경유해 6일 오후 3시 서귀포 남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6일 밤 사이 제주도 서쪽 부근 해상을 지나 7일 오후 3시쯤 군산 서쪽 약 8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링링'은 현재 소형급이지만 5일부터 강도가 중형으로, 제주에 가까워지는 6일부터는 크기도 중형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지역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6일부터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까지 추가로 유입되며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6일 밤과 7일 사이 제주도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 초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한반도로 북상할 경우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태풍의 진로는 기업계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100%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발표되는 기상예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 초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한반도로 북상할 경우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태풍의 진로는 기업계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100%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발표되는 기상예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 초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한반도로 북상할 경우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태풍의 진로는 기업계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100%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발표되는 기상예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 초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한반도로 북상할 경우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태풍의 진로는 기업계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100%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발표되는 기상예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 초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한반도로 북상할 경우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태풍의 진로는 기업계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100%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발표되는 기상예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 초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한반도로 북상할 경우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태풍의 진로는 기업계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100%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발표되는 기상예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사회적경제 일자리 3000개 만든다"

도, 수익 선순환 기반 로드맵 '시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취약계층 및 도민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사업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 빈곤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간병서비스 등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하기 위한 '제주사회적경제 뉴딜 일자리 3000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소의 계층, 빈부 격차, 노인복지 등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기업이 해결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기관·사회적경제기업·행정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위킹그룹의 토론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제주사회적경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대 전략 11개 중점과제 26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의 로드맵을 확정했다.

특히 지역사회 현안을 잘 아는 도민이 사업유형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설립,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한 수익은 또다시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 고용 창출을 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이끌어 나갈 기업이 양성을 위해 창업 전 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인큐베이팅, 멘토링, 전문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새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및 신규 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690억원(국비 237억원, 도비 110억원, 민간자본 343억원)을 투자하는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사와 가맹점 간에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소셜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개설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과 고용이 이뤄지는 사업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성윤기자

오늘의 기획... 7면 마을탐방 / 9면 제주섬 에코투어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죽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제주특별자치도

7.19, 10.19를 즐겨라

# JEU

## 2019 GRANFONDO

### 10.19 (SAT) 8AM Start 이호테우 해수욕장

접수 태바이크 www.thebike.co.kr  
문의 태바이크 032-322-3379 / 한리일보 064-750-2543 / 제주관광공사 064-740-6000(외국인 전용 문의처)

100km 그란폰도 코스  
30km 투어 코스  
키즈바이크 챔피언십  
다양한 이벤트 등

T-Campaign  
자전거(Tourism)를 통해 다같이(Together) 즐기고 동참하여 어린이들의 재능(Talent)을 지원하는 2019 제주 그란폰도 사회공헌캠페인.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기부해주세요!

그란폰도란 "긴 거리를 이동한다"는 이탈리아어로 비경쟁 장거리 자전거 마라톤 대회를 말합니다.

행사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 산영안연맹 TBM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한리일보 T-Campaign 후원 t'way Coca-Cola 유영영영 GARMIN ISLAND PROJECT BIKETRIP